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0.70원 상승한 1,389.0원에 마감

24일 환율은 전일대비 0.70원 상승한 1,389.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70원 상승한 1,390.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개장후 1,392원까지 레벨을 높였으나 당국 경계감에 상승폭이 제한됐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네고 및 커스터디 매도 물량을 소화하며 1,390원 아래에서 레인지 장세를 형성하며 1,389.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3.7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69.42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390.00	1392.00	1388.30	1389.00	1389.7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868.48	874.88	867.03	870.10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84.23	1492.65	1482.98	1490.26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4	-5.47	-13.27	-28.27
결제환율(수입)	0.05	-3.72	-11.59	-24.96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달러 과열 진정에...1,38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3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89.00) 대비 1.70원 하락한 1,385.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달러화 약세 및 반기말 네고 유입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밤 주요국 통화 반등과 뉴욕증시 차익 실현으로 약달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유로화는 프랑스 조기총선 불확실성에 하락세를 보이던 유럽증시가 반등하자 이를 숏커버 재료로 소화하며 0.5% 상승했다. 엔화는 아시아장 초반 빅피겨인 160엔을 앞두고 일본 정부 구두개입에 따른 경계감을 반영하며 159엔 중반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뉴욕증시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기술주 차익 실현에 나스닥이 1%대 조정을 받으며 바이 아메리카 분위기가 일단락되었다. 미국 2년, 10년 국채금리는 뉴욕장 막판 주가 하락폭 확대에 낙폭을 확대하며 장을 마감했다. 이에 1,390원 진

입을 시도하던 원달러 환율도 달러화 약세 분위기 속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출업체의 반기말 네고 물량 추격매도가 가세할 경우 환율 하락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80.00 ~ 1388.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288.8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70원↓
	■ 美 다우지수 : 39411.21, +260.88p(+0.6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5.8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930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